

유머를 깃들인 종말과 재앙

도미니크 럼바디展 3. 28~4. 9 도쿄 갤러리밀류

흔히들 '아포칼립스(Apocalypse)' 라 하면 피할 수 없는 어떠한 대참사를 묵시한다는 의미에서 인류의 종말과 연관계 거론한다. 현대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아포칼립스' 는 보다 긍정적인 면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류는 이미 여러 번의 '아포칼립스' 를 거쳐 왔다. 크게는 수없이 많은 전쟁과 학살이 그런 것이고, 작게는 개인이 싸워야 하는 병과 고난 같은 것을 표현한다. 그런 면에서 '끝의 끝' 을 강조하던 옛 전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이 있는 끝' 으로 해석되는 점이 새로운 충격이자 충전이 된다.

여기 '포스트 아포칼립스(Post-Apocalypse)' 라는 암시적인 타이틀로 인류가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참사의 후기를 본인만의 시각 언어로 제시하는 작가가 있다. 도쿄 긴자에 위치한 갤러리밀류에서 개인전을 여는 도미니크 럼바디(Dominick Lombardi)가 바로 주인공. 럼바디는 지난 6년 동안 '아포칼립스' 에 관련된 내러티브와 스토리에 맞는 캐릭터를 평면과 입체 작업으로 꾸준히 창작해 왔다. 캐릭터의 특징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아포칼립스' 의 영향으로 온몸이 철저히 왜곡된 점이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후에 망가진 얼굴과 몸을 안고 생존하는 일본 원주민들이나 1, 2차 세계대전에서 팔다리를 잃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모습, 또는 암치료를 위해 화학치료를 받고 머리털이 다 빠진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럼바디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문신과 카툰의 하이브리드한 기법과 완벽한 미디어를 사용해 익살스러우면서도 세련된 형태로 새롭게 탄생시킨다. 코믹한 느낌을 자아내면서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가볍게 해주는 로우 아트(Low-Art)의 특성을 차용하기도 한다.

물리적으로 완벽한 인간상과는 전혀 다른 럼바디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캐릭터 세계에는, 신체적인 결핍을 일반화시켜 그 아무도 소외당하지 않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평등한 생존에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타이틀의 일부분인 문신(Tattoo)이라는 말도, 그를 얻는 행위의 과정도, 과거엔 돌이킬 수 없는 표시로 인식되었으나 현대에는 지우고도 다시 새길 수 있는 표시로 인식된다. 세월 속에 상처 없는 사람도 없지만 지울 수 없는 상처도 없다는 암시일까? 도미니크 럼바디의 <Post-Apocalyptic Tattoo>는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도쿄 아트페어(4. 3~4. 6) 기간과 맞물려 열린다. 03)5537-8733 | 문인희 · 미술비평



위 · <스케치 패드> 종이에 마커 12.7×22.8cm
총 33페이지
아래 왼쪽 · <Head> 인디아 잉크
가운데 · <Heds (red)> 종이에 실크스크린
35.6× 35.6cm
오른쪽 · <Shrunken Head #11>
플렉시글라스에 아크릴릭 60.9×50.8cm

왼쪽 페이지
위 · <온 에어 프로젝트, 뉴욕 시리즈>
8시간 2005
아래 · <온 에어 프로젝트, 자화상 시리즈>
100개 국가, 100명 2004

